



제42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10km 부문에 도전한 마라토너들이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도로위를 달리고 있다. 낮 기온이 섭씨 17.2도까지 올라간 최적의 날씨 속에 참가자들은 역량을 심분 발휘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홀한 '자신과 싸움' 모두가 승자였다

■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 윤여춘의 관전평



전국 마라토너들 잔치 한마당

역사 걸맞는 전국대회로 우뚝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1만2천여명의 출전자들은 42.195km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와 10km, 5km 등에서 새봄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날씨 속에 힘찬 레이스를 펼치며 송고한 3·1정신을 새롭게 기렸다. 출전자들은 새 봄을 여는 이번 대회에서 겨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나주 남평교에 이르는 영산강변에서 열린 풀코스에서는 심재덕(39·경남 거제)씨와 배정임(41·경남 김해)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심재덕씨는 2시간 33분 35초 기록으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여자부 배정임씨는 3시간 02분 17초를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다. 메달 두번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마라토너들 사이에 유명인사인 심씨는 풀코스 우승 20여회, 100km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마라톤 우승도 5차례나 차지한 '철각'이다.

여자부 우승 배씨는 하프코스에서 20차례나 우승을 한 베테랑 마라토너. 여성 마라토너로서는 드물게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도 3차례나 달성했고, 최고 기록은 2시간 51분13초다.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처녀 출전의 배 씨는 내년대회에서도 우승,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하프부문에서는 김수용(33·대전)씨가 1시간 10분45초로 1위, 박성순(41·대전)씨가 1시간 21분17초를 기록, 여자부 1위에 올랐다. 또 10km 남자부에서는 원동철(36·대구)씨가 34분07초로, 여자부에선 정순연(34·대구)씨가 38분31초로 우승했다. 5km에서는 김승근(26·광주)씨가 16분02초로 남자부 1위, 정지윤(18·전북 군산)양이 19분05초 45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



풀코스 남녀 부문 우승자인 심재덕(39·경남 거제·왼쪽)씨와 배정임(41·경남 김해)씨가 결승점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남녀우승자 모두 강인함과 건장미가 넘쳐 보인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수와 시민 하나된 축제 기온 포근, 최상의 레이스

광주시, 전남도,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1만2천여 달림이들은 물론 광주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는 느낌이 매우 강렬하게 남은 대회였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그 의미도 크지만 42.195km의 마라톤이라는 달리기 운동이 우리의 흥겨운 농악 가락과 어울려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2007년 오 는 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3·1절은 일제의 강점속에서 우리 민족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알린 의거일. 따라서 모두가 온갖 고난속에서도 풀뿌리처럼 일어 난 3·1운동과 인내와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마라톤은 그 의미가 상 통하는 것 같다.

이때문에 국내에 400여 마라톤 대회가 열리지만 광주일보의 3·1 절 마라톤대회는 무척이나 감동이 넘치는 대회라는 생각이 든다. 풀코스 반환지점(21.0975km 지점)에서 울려 퍼진 흥겨운 농악대 의 가락은 지친 달림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동네 주민들과 대회 관계자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했다.

나쁜 날씨 탓에 조국의 고마움을 잊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조국을 생각하면서 5km, 10km, 하프코스(21.0975km), 풀코스 (42.195km)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힘차게 뛰어볼 수 있는 광 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마라토너라면 꼭 한 번 뛰어보고 싶 은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마라톤을 즐기는 전국의 마니아들이 겨울 훈련을 마친 뒤 남녘의 봄기운을 안으며 훈련의 성과를 뽐내며 체크 해 볼 수 있는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코스는 출발부터 6km까지 초반 내리막으로 순탄하게 이어지다 이후 오르막이 나타나지만 이내 11km 지점부터는 극락강 길 구간으로 지루함을 떨칠 수 있었다. 끝까지 10km를 앞두고 오 르막이 이어지는 등 난코스도 펼쳐지지만 전체적으로 코스설계가 잘 이뤄져 목심만 내지 않으면 기록을 낼 수 있었다.

엘리트 수준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유명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으 며 가족 단위의 출전자들도 많아 기량을 뽐내면서도 사랑을 나눌수 있는 대회였다.

대회운영도 전국규모의 어느 대회보다 더 질서 정연하게 이뤄졌 다. 편안한 레이스를 위한 차량통제가 완벽했고 광주시민들의 격려 와 협조도 빛이 났다.

비록 레이스 순위는 1등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흘린 땀의 보람을 얻는 대회였고 선열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는 대회에 동참했다는 의 미에서 출전자와 정의 앞장서는 광주시민, 대회 운영자 모두 1등 이 된 대회였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빛고를 광주에서 열리는 내 년 제43회 대회에도 더 많은 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MBC 마라톤 전문해설위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풀코스 남자	풀코스 여자
1. 심재덕 (2시간 33분 35초)	1. 배정임 (3시간 02분 17초)
2. 유호봉 (2시간 38분 55초)	2. 김영희 (3시간 07분 51초)
3. 함찬일 (2시간 40분 02초)	3. 서정래 (3시간 09분 45초)
하프 남자	하프 여자
1. 김수용 (1시간 10분 45초)	1. 박성순 (1시간 21분 17초)
2. 미타무호 (1시간 12분 55초)	2. 송미숙 (1시간 24분 16초)
3. 정기선 (1시간 14분 16초)	3. 안젤라 짝스 (1시간 25분 34초)
10km 남자	10km 여자
1. 원동철 (34분 07초)	1. 정순연 (38분 31초)
2. 강동식 (35분 23초)	2. 하유숙 (39분 51초)
3. 김순열 (35분 39초)	3. 남미옥 (40분 01초)
5km 남자	5km 여자
1. 김승근 (16분 02초)	1. 정지윤 (19분 05초 45)
2. 나종태 (16분 12초)	2. 권희순 (19분 26초 11)
3. 박재철 (16분 44초)	3. 황금식 (20분 12초 82)